

전남 농·공산품, 싱가포르·말레이서 인기몰이

김·뷰티 등 15개사 시장개척 201만달러 수출계약 성과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전남산 농·공산품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농수산물기업 9개사

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 환경, 시장 다양성, 낮은 진입장벽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석유·플라스틱 산업의 중심지로 중산층이 탄탄하다. 이슬람 시장 관문으로 역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훌륭한 시험 무대로 꼽힌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중소기업 15개사는 119개 현지 수입상과 1대1 상담을 통해 3,829만 달러 수출상담과 201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

국내 김 전문 기업인 ㈜해농은 싱가포르에서 3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5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에서 광어죽, 전복죽 생산기업인 (유)해성인터내셔널이 100만 달러, 발전설비용 신축이음관 제조기업인 ㈜디엠티가 10만 달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봉강친환경이 8만 달러, 리사이클링 조미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해산이 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향다원이 유기농 녹차, ㈜가보팍스가 꿀 유자차 등 음료, ㈜꿀흔들이 조미김 등 천연조미료, ㈜엔피케이가 효소 등 건강기능식품, 대륙식품(주)이 조미김 자반, 완도삼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록바이오텍이 기초화장품, ㈜하백이 배수펌프, (유)호인이 네일제품, ㈜제이비엔아가 브레이크 패드를 출품해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문경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성공은 지역 기업의 세계 경쟁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와 함께 이번 시장개척단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정책자금, 애로사항 청취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순천정원박람회 첫선 프레오픈에 3만명 몰려 성공개최 긍정 신호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열린 ‘프레오픈(사전체험)’ 행사에 관람객 3만여명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26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열린 프레오픈 행사에 순천시민 등이 대거 몰리며 박람회 성공 개최의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박람회장 프레오픈은 ‘특별 체험권’을 지닌 3만명에게 박람회장을 사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특별체험권 예매는 예매 시작 일주일 만에 3만매가 풀릴 정도의 박람회 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프레오픈 행사가 시작되자 국가정원은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을 이뤘으며 오전 10시 개장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국가정원으로 쏟아졌다.

가든스테이션과 시원한 동전에서 벚꽃을 구경할 수 있는 정원드림초 체험은 시작 한 시간도 안돼 매진됐고,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물새놀이터’, 화려한 핑크색을 띤 홍학무리, 알파카와 동물원,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꿈틀 놀이터’ 등은 가족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새롭게 조성된 이번 박람회장은 국가정원 내 관람차 동선을 외곽으로 크게 돌려 도보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한 점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박람회 프레오픈 행사는 시민들과 박람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입소문을 통한 박람회 붐 조성 및 이슈화를 위해 진행했다”며 “개막식과 개장 첫날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공통 문제로 제기되는 기후 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며 “관람객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행복을 선물해드리기 위해 남은 기간 완성도 높은 박람회를 만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31일 오전 그린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장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임재민 기자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점검

광주시는 26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연 2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1회씩 총 4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대책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분기 점검은 27일부터 29일까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전문가와 함께 사업 현장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 면적 5,000㎡ 이상 주택건설현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조성 현장, 2km 이상 도로공사 현장 등 5곳이다.

점검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착공 통보 여부 ▲사업장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와 협의 이행계획서 비치 여부 ▲당초 협의 내용 이행계획 및 관리대상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개선 조치한다.

/김용원 기자



청년 진로찾기 프로젝트 워크숍 광주시 동구는 25일 영상회의실에서 임택 청장, 청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진로찾기 프로젝트 ‘일단 한번 해보GO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구 제공

이주동포 품은 광주, 재외동포청 유치 난기류

▶1면에서 계속

이 같은 기반과 호소에도 재외동포청 광주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외교부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이나 수도권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가장 큰 부담이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들 역시 서울 선호가 뚜렷하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이 한인회, 재외동포단체장 등 2,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청 설립 희망 지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1,736명)가 서울을 선택했다. 인천은 14%

(356명), 경기 10% (236명), 기타는 6% (139명)에 각각 그쳤다. 나라별 집계에서도 독립국가연합(CIS),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등에서 모두 서울이 1순위로 꼽혔다.

전국 지자체와의 뜨거운 유치 경쟁을 뚫어낼 지도 미지수다.

재외동포청은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청에 드나드는 수많은 해외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유치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인천시로,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등 오랫동안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재외동포가 입국한 뒤 곧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서울 외교부 청사와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계부처 방문, 중앙부처 인맥 동원, 간담회 개최 등에 적극 나서며 유치를 힘을 보태고 있다.

이밖에 경북 경주와 충남 천안, 경기 고양·안산, 기존에 해외동포재단이 있었던 제주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재외동포청 유치에 난기류가 흐르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지역 정

치권의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 포용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만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관련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통상적으로 2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빠른 다음 달에는 설립 대상 지자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도권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 100%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전남매일 영웅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자지대를 선도하는 종합시매가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